봄 오는 길목 캔버스에 피어나는 홍매화

지난 11일 찾은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은 홍매화가 흐드 러지게 피어 있는 가운데 이젤과 붓을 든 사람들이 곳곳에 서 보였다. 봄을 시샘하는 추운 날씨임에도 이날 모인 사람 들은 약 300명. 연륜이 느껴지는 전업화가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 어린이집 아이들, 일반 시민들까지 저마다 앉은 자 리에서 꼼짝을 않고 홍매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각 자 생각하는 구도에 따라 매화나무 옆에 화구(畵具)를 펼치 거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등 각기 다른 개성이 엿보였다.

광주시립미술관 '시민과 함께하는 매화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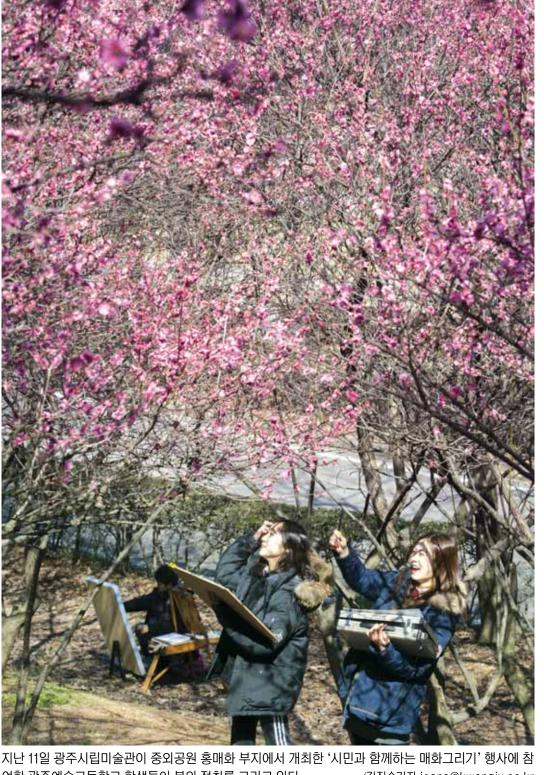
중외공원서 300여명 참가 북적 황순칠・류재웅 등 작가 시민들과 소통 작품 선정 4월 시립미술관 전시

대규모 인원이 자리잡고 그림 그리는 모습은 관심을 끌 기에 충분했다. 중외공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은 "무슨 일 이냐"고 묻기도 하고 가만히 옆에 서서 구경하기도 했다. 붓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캔버스에서 새롭게 피어 나는 매화꽃은 대단한 구경거리였다.

이들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첫 주최·주관한 '시민 과 함께하는 매화 그리기' 행사 참여자들이다. 작가와 시 민들은 광주에서 가장 먼저 빨리 피기로 소문난 중외공원 매화를 그리며 봄을 맞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지난해 황순칠 작가를 주축으로 지역 선후배 미술인 10여명이 중외공원에서 진행했던 홍매화 사생에 서 비롯됐다. 시립미술관 제안으로 올해부터 일반 시민들 도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행사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날도 노여운, 류재웅, 이선묵, 이창훈, 오광섭, 위진수, 장용림, 정경래, 정선휘, 조규철, 조현수, 황순칠, 허임석 등 작가 들이 동참했다.

특히 광주예술고등학교 미술과, 한국화과 1·2학년 학 생 약 120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사생에 참여 했던 이선복 미술과 교사가 학생들이 현장감을 살리고 현 직 작가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학생들



여한 광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봄의 정취를 그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은 현직 작가들이 그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학교에 서 배우지 못하는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작가들도 학생들을 위해 작업을 도와주거나 세부적인 기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선복 교사(미술과)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각종 미술대회에 앞서 겨울동안 움츠렸던 학생들이 시민, 작가들과 소통하며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참여하게 됐 다"고 말했다.

이하랑(미술과 2년) 학생은 "학교에서만 배우다가 이 렇게 밖에 나와서 선배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 느 끼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오광섭 작가가 한창 그림을 그리던 중 갑자기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수 채화 기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캔버스 전체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 후 채색하는 '번지기' 기법을 보여줬다. 중간중 간 "이런 표현은 '우연'을 입힌다고 하는데 우연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등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학생들은 연신 '우와', '완전 멋있다' 등 감탄사를 연발하며 붓터치 하나

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오 작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리면 개성이 있다고

만 하지 입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화가로서 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성을 살릴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진심어린 조언을 하기도

어떻게 그려요' 등 질문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며 "올 해는 선후배 뿐 아니라 학생, 일반인들이 서로 어울려 작 업을 하니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황순칠 작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그리셨어요', '이건

황순칠, 류재웅 등 대선배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림을 그리던 이기효(미술과 2년) 학생은 "그동안 대회 위주 그림만 그리다가 선배들 조언을 들으니 앞으로 어떤 작가가 돼야 하는지 배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 일반인 등이 그린 그림은 추후 선정작업을 통해 4 월19일부터 5월22일까지 시립미술관 로비 아트라운지에 서 작가 작품과 함께 전시된다. 전시를 위해 작가들은 18 일 매화가 유명한 경남 김해 건설공업고등학교에서 한차 례 사생을 더할 예정이다.

조진호 관장은 "내년에는 홍보도 더 하고 구체적인 계획 안도 마련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키겠다"고 말했다.



'우항리'

'낙원, 우항리 고천암'

해남 행촌미술관 4월16일까지 김은숙 사진전

해남 행촌미술관이 봄맞이 전시로 10일부터 4월16일까지 김은숙 사진작 가를 초청해 '낙원樂園 우항리 고천암 20152016'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은숙 작가가 지난해 부터 올해 2월까지 우항리 일대와 고 천암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담은 사 진작품 30여점과 사진 1000여점을 편 집해 만든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약 10년 전 우연히 카메라 작가로 입 문한 김씨는 여성 특유 섬세하고 맑은 시선으로 꽃, 곤충, 물이끼 등 자연을 다정다감하게 바라본 작업을 하고 있

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사진 작품도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작품 '습지', '우항리', '황토밭' 등에 등장하는 우항 리와 고천암은 인간 세계라기 보다는 새들의 천국이자 원시자연 세상이다.

김씨는 "과거에는 공룡, 지금은 새 들이 차지한 작품 속 낙원이 사람들에 게도 영원한 낙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 음을 담았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김씨는 지난해 첫 개인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를 열었 다. 문의 061-530-828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7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 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씨는 이번 음악회에서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 중 첫 번째 곡인 '피아노 소나타 제28번 작품번호 101'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로 유명한 바버의 대표 적 피아노 작품 '소풍'이 연주되며, 슈 만의 '환상곡 작품번호 17번'도 만날

광주예고 재학중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떠난 이씨는 뒤셀도르프 국립

피아니스트 이슬 피아노 독주회가 음대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 업하였다, 또한 동 대학원에서 피아노 실내악과 가곡반주 전문연주자 과정 을 최고점수로 졸업했다.

> 한국과 독일에서 다양한 연주활동 을 펼쳤으며, 귀국 후에는 독주자, 반 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호남신학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광주 예고, 전남예고에서 후학양성에 힘쓰 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를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남동성당옆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